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14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 당 자	• 환경교육산업팀장 최유리 ☎440-3536 • 담 당 자 윤윤희 ☎440-353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위기 시대! 인천은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난다

- '2022년 제3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성료, 미래 환경교육도시 청사진 모색 -
- 오는 9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에 인천이 지정되도록 협력하기로 -

인천광역시는 지난 8일 환경부가 지정한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기후위기사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제3회 환경교육도시 포럼」을 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미래 환경교육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인천시 환경국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생명의 숲 김인호 공동대표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란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김 공동대표는 “환경교육은 개인 일상과 연계돼야 하며, 환경교육도시는 도시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환경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환경친화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소양인을 기르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자연의 벗 연구소 오창길 공동대표가 ‘환경학습권과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학교,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환경교육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오늘 9월 환경부에서 지정 예정인 ‘환경교육도시’ 인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시는 해양, 생태, 생활환경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로, 다양한 세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식과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행사